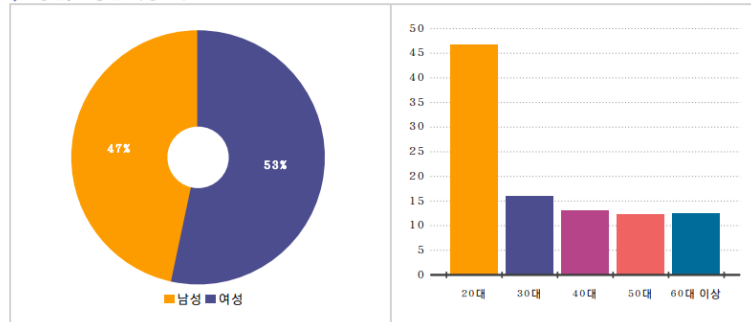


● 직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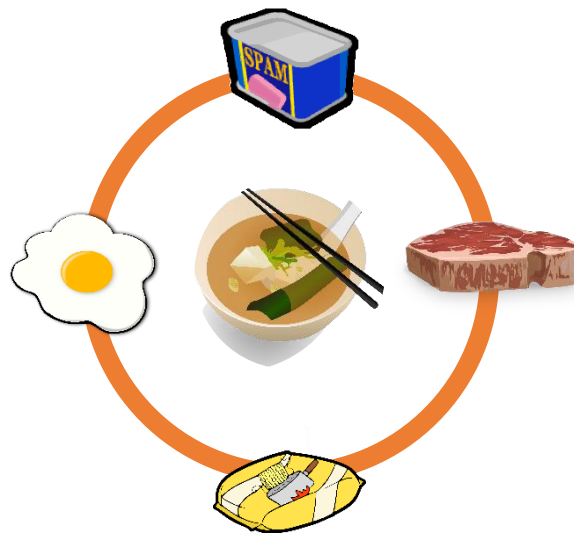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직장인구

2020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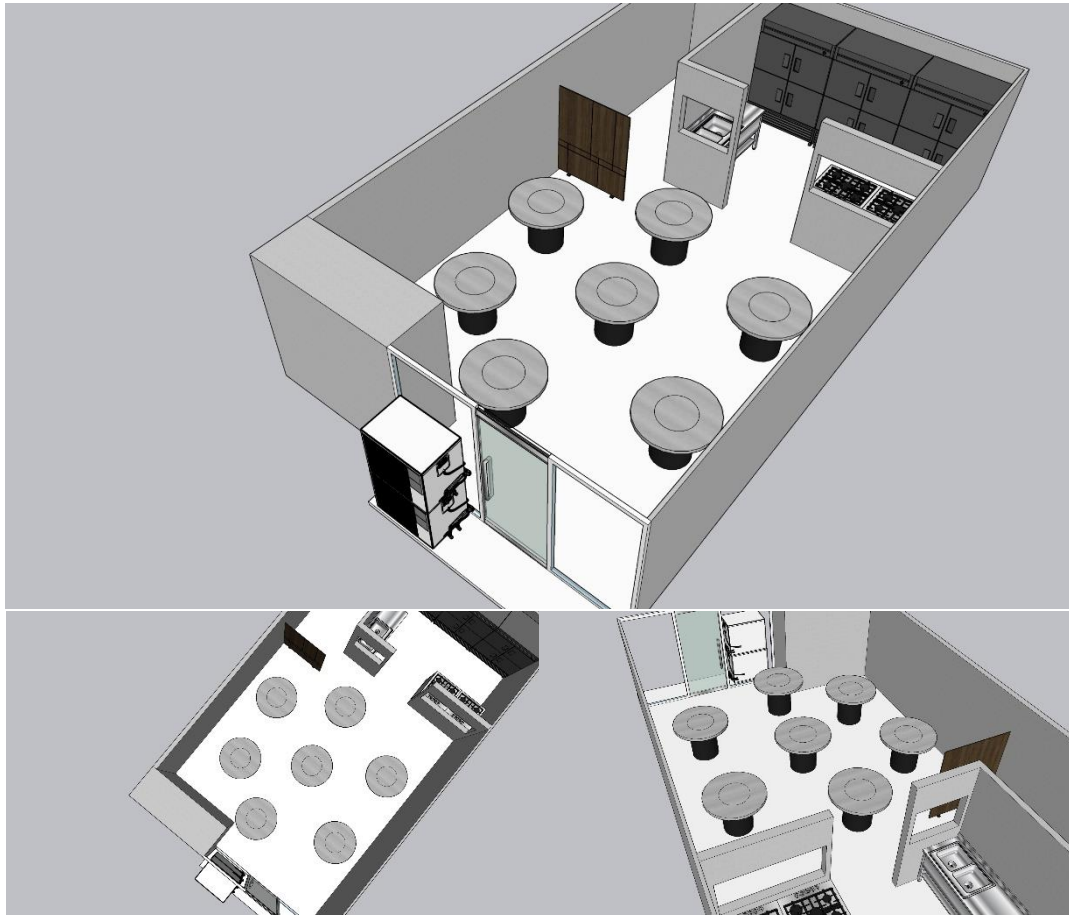
20대의 직장 비중이 높다는 점을 유심히 확인해보았다. 흑석동은 중앙대학교 근처로 대학가 상권을 주로 자리잡았다. 대학가 상권의 경우 학생들의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 그리고 인근에서 주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식사가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로 간편하거나 깔끔한 음식을 찾고 20대의 트렌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혼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혼자"있는 20대를 잡을 아이템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대규모 회식이나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자리보단, 소수가 와서 잠시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컨셉으로 자리잡으면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따라서, 가게의 컨셉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김치찌개"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위 컨셉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가지 속성을 생각하였다.



첫번째는 1인분으로 소박하면서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개발이었다. 현 메뉴판을 보면 1인분이 존재하나 계란말이, 사리추가, 사이드 메뉴의 경우 한 개만 시켜도 1인분 이상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1인분을 주문하고 라면사리 한 개를 추가하면 다수가 양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 각종 사리의 양을 대폭 줄이고 금액도 그만큼 줄여서 한 명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강점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리의 경우 보관만 잘 하면 소분하여 단체손님에게는 1.5인분의 사리 추가와 같이 보다 선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부분이라고 예상한다.

두번째는 식당의 배치다. 현재 식당 배치의 경우 여럿이 먹는 김치찌개 특성상 가운데 김치찌개를 버너를 통해 계속 끓이고 이를 각자 나눠 담아 먹는 상황이다. 이는 혼자서 밥을 먹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테이블이 원형이기에 손님이 느끼는 분위기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재 식당의 배치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본 배치를 변경하기 앞서 “혼밥”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 앞이 뺨 뚫어져 있는 형태보단, 부담스럽지 않도록 앞이 막혀 있는 형태가 필요했다. 대부분 혼자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간 최대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했다. “혼밥”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한국에는 부끄러운 분위기가 강하다. 물론 많이 바뀌는 추세이지만 코로나라는 거리두기 인식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옆사람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도를 제작하였다.

아래 배치도는 여럿이 먹는 사람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혼자 밥을 먹는 사람까지 고려한 된 배치도이다.



탁상 사이사이 가림 판을 배치하여 옆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다. 이는 혼밥을 위한 것도 있으나 코로나 거리두기를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 버너를 배치하여 혼자 먹어도 따뜻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정면의 시선을 벽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점포 가운데 다인용 식탁을 배치하여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배치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위 배치는 "혼밥"하는 사람을 위해 너무 치중 되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조적인 변경을 시도하였다.



위 배치도는 요일, 시간, 수요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인~ 4인의 단체 인원이 많은 시간대일 경우 위 사진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단체를 받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다.

